

# GIST, 'AI대학' 출범

## 국가 AI·반도체 융합 인재 양성 본격화

- 기존 정보컴퓨팅대학 확대개편 학부생부터 석박사까지 1천 명 규모 AI 교육연구 플랫폼 구축
- 서남권 AI·반도체 산업 거점 육성 전략 맞춰 글로벌 융합 인재 공급 기지 역할 수행
- 2027학년도 학사 모집정원 100명 확대... 학부-대학원 잇는 파이프라인 고도화



▲ GIST 캠퍼스 전경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7월 1일 기존 정보컴퓨팅대학을 확대·개편한 AI대학(학장 김종원)을 공식 출범하고, 국가 AI·반도체 전략을 뒷받침할 세계 수준의 AI·반도체 융합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최근 정부가 서남권을 AI·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가 AI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인재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GIST는 AI대학 출범을 통해 이러한 국가 전략에 발맞춰 AI·반도체 분야 고급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GIST AI대학은 기존 정보컴퓨팅대학을 기반으로 확대 개편된 조직으로, 출범과 동시에 재적생 990명(학사 472명, 대학원 518명) 규모의 교육·연구 플랫폼을 갖췄다. AI대학은 ▲AI학과 ▲AX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반도체공학과 ▲AI정책전략대학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AI대학은 AI와 반도체를 교육의 두 축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AI반도체

및 시스템 ▲산업 AX(AI 전환, AI Transformation) ▲AI 정책으로 교육 영역을 확장하는 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AI 핵심기술과 AI반도체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에너지, 제조, 바이오·헬스케어 등 산업 전반의 AI 전환(AX)과 AI 정책·전략을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각자의 전공과 진로에 맞는 전문성과 융합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다.

앞으로 GIST는 AI영재학교와 연계한 조기 인재 발굴, 학부-대학원 연계 교육,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AI 인재양성 파이프라인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7학년도부터 학사과정 모집정원을 전년 대비 100명 늘린 총 330명 내외로 확대해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산학협력과 첨단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AI반도체와 산업 AX 분야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AI·반도체 전략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대표 AI·반도체 융합 인재양성 허브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임기철 GIST 총장은 "AI대학은 단순히 새로운 단과대학을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 AI·반도체 전략과 산업계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의 출발점"이라며, "GIST는 AI 전문가 양성에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해 반도체,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등 모든 산업의 혁신을 이끌 AX 인재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AI·반도체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교육·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